여수박람회 D-200

교통·숙박시설 얼마나 준비됐나

주말 관람객 12만명 몰려 시내 곳곳 정체 불보듯

하루 숙박 수요 2만7877실 중 내년까지 9158실 확보

국제적 행사 불구 홍보 부족… 청·장년층 인지도 낮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가 2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 신항 일대 박람회장 조성 공사 현장. 박람회장 내 주요 전시관 및 종사장 숙소로 활용될 엑스포타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5일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통·숙박·홍보 대책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수박람회는 103개 국가에서 80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돈(내·외국인 관광객 소비지출 규모 1조 2400억원)을 쓰면서 관련 산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대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국제적 이벤트. 그 위상에 걸맞게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교통 대책 서둘러야**=우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애초 요청한 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국비(412억원) 중 미반영된 148억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은 커녕, 최악의 교통 대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여수시내 교통 대책 보완도 시급하다. 여수시는 특히 박람회장을 들렀다가 여수시내를 찾는 관람객이 5~8월의 경우 주중에만 하루 평균 4만 3800여명에 달하고 주말에는 평균 12만2900여명이 시내 관광지를 돌아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람객이 몰리는 휴가철 주말에는 하루 최대 19만4000여명이 몰리면서 여수시내 관광지가 발 디딜틈 없이 북적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시는 박람회 기간 내 3곳의 엑스포터미널을 만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교통 수요를 결집시켜 시내 교통체증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걸어서 쇼핑과 관광·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일대에서 차별화된 공연·놀이문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교통 대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예산 확보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

열악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람객은 89만6000명. 철도(131만명)·항공(31만4000명)·해운(12만4000명) 등을 포함하면 400만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박람회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관람객 수송을 위해서는 주중 243대, 주말 최대 1452대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서울~여수간 운행 버스(현재 25대)의 경우 주말 최대 286대가 부족하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운행횟수 증편에 대한 협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철도는 ▲주중 5편(4523명 부족) ▲주말 17편(1만6436명 부족) ▲주말 최대 40편(3만8447명 부족)의 증편이 필요하고 항공편은 여수공항의 항공기 1대당 수송 능력(145인)과 하루 운항 횟수를 감안하면 주중 2편, 주말 19~24편, 주말 최대 93편의 운항이 요구된다.

◇**대체·임시숙박시설 늘리고 서비스 개선해야**=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관람객들을 고려한 숙박 시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여수시는 박람회 기간 내 하루 숙박 수요(2만7877실)중 내년까지 250곳 9158실(32.9%)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급숙박시설도 필요한 1만5261실 가운데 대명VIP 호텔과 오션리조트, 경도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 등을 건립해 1387실을 확보하는 한편, 여수 주변 1~2시간 거리의 호텔·콘도 등을 관광자원과 연계해 숙박 문제를 최소하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고급 숙박시설의 경우 여전히 1만3800여실이 부족한데다, 주변과 여수에서 1시간 이내 숙박시설도 미흡한 점을 감안해 임시·대체 숙박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지역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국가 이벤트로 치러지는데도 불구, 지난 2월 이뤄진 박람회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인지도는 34.8%로 비슷한 시기의 대전박람회 인지도(76%)에 비해 낮다. 19~39세의 청·장년층 인지도의 경우 평균(34.8%)에도 10% 이상 못 미치는 22.4%에 불과해 홍보가 절실하다.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한 홍보가 이뤄지지 못한 탓에 대학생 홍보 대사를 모집했다가 뽑지 못하고 재모집키로 하는 등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외국인 관람객도 조직위 예상(55만명)보다 13만명이나 부족한 42만4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자칫 '지역 축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세밀한 해외 마케팅 방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멈춰선 J프로젝트 '땅값 갈등' 풀릴까

보성 출신 박재순 농어촌公 사장 취임에 효과 기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인식이 바뀔까.

보성 출신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을 계기로 전남도의 핵심 현안인 J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J프로젝트 사업부지의 양도·양수 문제로 땅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 이를 사들이려는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된 보성 출신 박재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날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박 사장은 강진군수와 전남도 농정수산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뒤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한나라당 최고위원까지 지내며 여당 내에서 호남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겼던 만큼 박 사장이 고향의 최대 현안사업을 잘 살펴보고 배려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다.

J프로젝트는 농어촌공사가 해남·영암 지역 바다를 메워 개간한 간척지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로 개발하는 정부 주도의 기업도시 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간척지를 파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법정소송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올 스톱'상태가 1년여간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뿌리가 깊고 애정이 많은 박 사장이 임명되자 제자리 상태인 J프로젝트에도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도 박 사장의 농어촌공사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 J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안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해수면 상승 위기 몰디브·투발루 등도 참가

200일 밖에 남지 않은 여수세계박람회는 현 정부가 임기 내에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내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174만㎡에 달하는 여수 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참여하는 국가만 103개국에 달한다. 대륙별로는 유럽(21개)·미주(19)·아시아, 오세아니아(31)·아프리카(25)·중동(7) 등이다.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동아시아 세계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CBD)·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지구환경기금(GEF)·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8개 기구가 참여, 인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인류가 자원의 보고이자 자연의 품인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는 박람회 취지에 맞게 기후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위기를 맞고 있는 몰디브·투발루·나우루·키리바시·통가 등도 참여한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라는 주제에도 불구, 바다와 접하지 않은 스위스·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말리·몽골·부르키나파소 등도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여수박람회 참가국 현황

대륙별	국가수	국 가 명
유 럽	21	우크라이나, 터키, 아제르바이잔, 스위스, 독일, 스페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루마니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타지키스탄, 벨기에,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러시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크로아티아(2.24)
미 주	19	파나마, 가이아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미국, 수리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안티구아바부다, 세인트키츠네비스,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아시아, 오세아니아	31	일본, 태국, 캄보디아, 바누아투, 베트남, 네팔, 중국, 솔로몬군도, 라오스, 몰디브, 몽골, 파키스탄, 인도, 미샬군도, 피지, 브루나이, 동티모르,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투발루, 스리랑카, 싱가포르, 팔라우,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나우루, 키리바시, 통가,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아프리카	25	리비아, 이집트, 세이셸, 코트디브와르, 알제리, 앙골라, 튀니지, 가나,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말리, 탄자니아,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가봉,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적도기니, 우간다, 감비아, 기니, 에리트레아, 르완다
중동	7	사우디, 예멘, 오만, UAE, 요르단, 카타르, 이스라엘
국제기구	8	OECD, IPCC, PEMSEA, CBD사무국, UN,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 GEF, FAO

빛日만평

- 김종두

9회말 투아웃의 구원투수, 과연…?!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백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 구)도청열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